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

그 넓은 운동장을 다 걸어 나올 때까지 불현듯 어머니의 입에서 새어 나온 말은 꼭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를 향해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닳투리에 더 가까웠다. 교문을 나선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재쳐 두고 웬일인지 곧장 다릿목에서 왼쪽으로 꺾어 드는 것이었다. 저만치 구호소 식당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 그를 어머니는 별안간 무서운 힘으로 잡아끌었다.

㉡ 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 시상에…… 시상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께서 이런 꼴을 보시면 뭇이라고 그러시잖나이.

어머니의 음성은 돌연 냉랭하게 변해 있었다. 끝내 그는 좌양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어코 구호소 식당 안의 때 묻은 널빤지 의자 위에 그를 끌어다가 앉혀 놓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손바닥에 받쳐 들고 온 것은 ㉢ 한 그릇의 국수였다. 긴 대나무 젓가락이 찢어져 있는 그것을 어머니는 그의 앞으로 밀어 놓으며 말했다.

㉣ 먹어라이.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

어머니의 음성에는 어느새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는 젓가락을 뽑아 들고 무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팔각 놓아 버리고 말았다. 마주 앉아서 그때까지 그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을 어머니의 눈에는 소리도 없이 눈물이 그득히 괴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자 밑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갑자기 목구멍이 빠근해져 울을 느껴야 했다.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기억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국수는 그에게 여전히 싫어하는 음식으로 남아 있었다.

(중략)

어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조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두 달 전쯤부터였다. 그날따라 겨울이 전에 없이 일찍 앞당겨 찾아온 듯한 늦가을 날씨로 밝은 유난히 썰렁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아리듯 하며 맛없는 아침상을 받고 있노라니까 아내가 심상찮은 기색으로 곁에 쪼그려 앉는 것이었다. 그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짐짓 신경질적인 표정부터 준비했다. 그즈음은 마침 지난달의 봉급을 받지 못한 메다가 그달 봉급마저도 벌써 며칠째 넘기고 있던 참이었으므로, 이번에도 또 아내의 입에서 보나 마나 궁색한 소리가 튀어나오리라고 지레짐작했던 때문이었다. 급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직장을 뭇 하러 나다니야 하는 당연한 투정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그게 아니었다.

여보. 나가시기 전에 어머니 좀 잠시 들여다보세요. 암만 해도…….

아니 왜. 감기약을 지어 드렸는데도 여전히 차도가 없으시

대?

며칠 전부터 몸이 편찮으시다고 누워 계시는 줄은 그도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노라고, 아마도 고열인 것 같으니까 누워 있으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하며 어머니는 손을 내젓던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저어, 암만해도 어머니께서 좀 이상해지신 것 같단 말예요.

그,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내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정쩡한 표정으로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때렸다.

아무리 봐도 예전 같지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정신이 총총하시던 분이 별안간 무슨 말인지도 모를 헛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어찌다가는 또 말짱해 보이시는 것 같다가도 막상 물어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일부러 그러시는가 했는데, 글썄 그게 아니예요.

도대체 난데없이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웬지 섬뜩한 예감에 그는 손가락을 놓고 곧장 건너가 보았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무얼 생각하는지 멀거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의외로 안색이 나아 보였으므로 그는 적이 맘을 놓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두 번씩이나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꼼짝도 하지 않고 망연한 시선을 천장의 어느 한 점에 멈춰 두고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멍청하게 앉아 있던 그가 자리에서 마악 일어서려 할 때였다.

㉤ 찬우야이!

어머니의 입에서 불쑥 그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직감적으로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휩싸안는 것 같았다. 아직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가 결혼한 후로는 그랬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가 놀랐던 것은 어머니의 음성에서였다. 그것은 이미 예전의 귀에 익은 음성이 아니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흘러나오곤 하던 그 목소리에는 대신 어딘가 냉랭하면서도 들떠 있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내심 섬찟했던 것은 바로 그 생경한 이질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놀란 눈으로 황급히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 찬우야이. 어서 꼬두메로 돌아가자이. 느그 아버지랑 찬세가 얼마나 기다리겠냐아. 더 추워지기 전에 싸게싸게 집으로 가야 한단 말다이.

어머니는 나직하게, 그러나 힘이 서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너무 당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열린 쉽사리 가려낼 수가 없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②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 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2.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와 '그'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매개물이다.
- ② '그'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③ '그'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는 매개물이다.
- ④ '어머니'에 대한 '그'의 배려를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 ⑤ 어려운 처지의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는 매개물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㉑~㉔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눈이 오면,」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발화 내용과 어우러져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수치심, 죄책감, 불길함, 섬찝함, 당혹감 등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야기한다.

- ① ㉑에서 '어머니'가 냇두리에 가까운 말로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한 것은 '그'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느낀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군.
- ② ㉒에서 '어머니'가 냉랭한 음성으로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군.
- ③ ㉓에서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그'에게 불길함을 느끼게 하여 젓가락을 딸 각 놓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군.
- ④ ㉔에서 '어머니'가 생경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에게 '어머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여 섬찝함을 느끼게 하는군.
- ⑤ ㉔에서 '어머니'가 힘이 서린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져다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에게 당혹감을 갖게 하는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눈이 오면」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발화 내용과 어우러져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수치심, 죄책감, 불길함, 섬뜩함, 당혹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야기한다.

✓ 읽기 전 활동

작품 속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수치심, 죄책감, 불길함 등의 여러 감정을 ‘그’에게 불러일으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작품을 읽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

그 넓은 운동장을 다 걸어 나올 때까지 불현듯 어머니의 입에서 새어 나온 말은 꼭 그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그를 향해 묻는 말이라기보다는 닥두리에 더 가까웠다. 교문을 나선 어머니는 집으로 가는 길을 제쳐 두고 웬일인지 곧장 다릿목에서 왼쪽으로 꺾어 드는 것이었다. 저만치 구호소 식당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그런 그를 어머니는 별안간 무서운 힘으로 잡아끌었다.

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 시상에…… 시상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께서 이런 꼴을 보시면 똥이라고 그러시니까.

어머니의 음성은 돌연 냉랭하게 변해 있었다. 끝내 그는 좌양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기어코 구호소 식당 안의 때 묻은 널빤지 의자 위에 그를 끌어다가 앉혀 놓았다.

잠시 후 어머니가 손바닥에 받쳐 들고 온 것은 한 그릇의 국수였다. 긴 대나무 젓가락이 썰려져 있는 그것을 어머니는 그의 앞으로 밀어 놓으며 말했다.

먹어라야.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

어머니의 음성에는 어느새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는 젓가락을 뿔아 들고 무 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떠 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딸각 놓아 버리고 말았다. 마주 앉아서 그때까지 그를 줄곧 지켜보고 있었던 어머니의 눈에는 소리도 없이 눈물이 그득히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탁자 밑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는 어머니의 낡은 먹고무신을 내려다보며 그는 갑자기 목구멍이 빠근해져 울을 느껴야 했다.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런 기억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까지도 국수는 그에게 여전히 싫어하는 음식으로 남아 있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어머니는 ‘그’에게 배가 고프냐며 묻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발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구호소 식당으로 갑니다. ‘그’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구호소 식당은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어린 마음에 이러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다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면 똥이라 하겠냐며 구호소 식당으로 ‘그’를 끌고 가 국수를 먹이게 됩니다. 결국 ‘그’는 국수를 먹습니다. 국수를 먹다가 고개를 들었던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그’는 목구멍이 빠근해서 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 또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구호소 식당 앞에 얼쩡거리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국수를 싫어하게 됩니다.

〈보기〉에서 말한대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왜 이러한 감정이 나타났는지를 파악하지 못해도, ‘그’에게 여러 감정이 나타났다는 것은 파악해야 합니다.

(중략)

어머니한테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조짐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은 두 달 전쯤부터였다. 그날따라 겨울이 전에 없이 일찍 앞당겨 찾아온 듯한 늦가을 날씨가 밝은 유난히 썰렁했다. 젓가락으로 밥알을 헤아리듯 하며 맛있는 아침상을 받고 있노라니까 아내가 심상찮은 기색으로 곁에 쫓그려 앉는 것이었다. 그녀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짐짓 신경질적인 표정부터 준비했다. 그즈음은 마침 지난달의 봉급을 받지 못한 데다가 그달 봉급마저도 벌써 며칠째 넘기고 있던 참이었으므로, 이번에도 또 아내의 입에서 보나마나 궁색한 소리가 튀어나오리라고 지레짐작했던 때문이었다. 급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직장을 뗏 하러 나다니야 하느냐는 당연한 투정 때문에 얼마 전에도 한바탕 말다툼을 벌였던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아침은 그제 아니었다.

여보. 나가시기 전에 어머님 좀 잠시 들여다보세요. 암만 해도…….

아니 왜. 감기약을 지어 드렸는데도 여전히 차도가 없으시는데?

며칠 전부터 몸이 편찮으시다고 누워 계시는 줄은 그도 알고 있었다. 병원에 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더니, 특별히 아픈 데는 없노라고, 아마도 고열인 것 같으니까 누워 있으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하며 어머니는 손을 내젓던 것이었다.

그제 아니라, 저어, 암만해도 어머님이 좀 이상해지신 것 같은 말예요.

그,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내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어정정한 표정으로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때렸다.

아무리 봐도 예전 같지가 않으시다구요. 그렇게 정신이 총총하시던 분이 별안간 무슨 말인지도 모를 헛소리를 하시기도 하고……. 어찌다가는 또 말짱해 보이시는 것 같다가도 막상 물어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일부러

그러시는가 했는데, 글썸 그게 아니에요.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그’는 어머니에게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조짐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그’에게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예전 같지 않고 헛소리도 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마 치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치매와 비슷한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짐작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도대체 난데없이 무슨 소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설마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을까 싶으면서도 웬지 섬뜩한 예감에 그는 손가락을 놓고 곧장 건너가 보았다.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무얼 생각하는지 멀거니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다. 의외로 안색이 나아 보였으므로 그는 적이 맘을 놓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두 번씩이나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에도 대답이 없었다. 그저 끄떡도 하지 않고 망연한 시선을 천장의 어느 한 점에 멈춰 두고 있을 뿐이었다. 한동안 멍청하게 앉아 있던 그가 자리에서 마악 일어서려 할 때였다.

찬우야!

어머니의 입에서 불쑥 그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했다. 직감적으로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휩싸 안는 것 같았다. 아직까지 어머니는 한 번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가 결혼한 후로는 그랬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그가 놀랐던 것은 어머니의 음성에서였다. 그것은 이미 예전의 귀에 익은 음성이 아니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따뜻함과 부드러운 품으로 흘러나오곤 하던 그 목소리에는 대신 어딘가 냉랭하면서도 뜰며 있는 듯한 건조함이 배어 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가 내심 섬찟했던 것은 바로 그 생경한 이질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놀란 눈으로 황급히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찬우야. 어서 꼬두메로 돌아가자. 느그 아버지랑 찬세가 열매나 기다리겠냐. 더 추워지기 전에 싸게싸게 집으로 가야 한단 말다이.

어머니는 나직하게, 그러나 힘이 서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가 너무 당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열린 쉽사리 가려낼 수가 없었다.

- 임철우, 「눈이 오면」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는 어머니를 두 번이나 불렀지만, 어머니는 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어머니는 ‘그’를 찬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듣고 불길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그’가 결혼한 후로 이름을 직접 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음성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운 음성이 아니라, 냉랭하고 들뜬 듯한 건조함이 담긴 음성이라 ‘그’는 이를 듣고 이질감도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꼬두메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아버지와 찬새가 기다린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의 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완전히 옛날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이러한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하고 있습니다.

#작품 총평

중략 이전에는 어머니와 ‘그’의 과거 사건이, 중략 이후에는 현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슬프고 감정을 자극시키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서술이 어렵지도 않고 직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에서 말한대로 어머니의 발화가 ‘그’에게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주목했으면 됩니다.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① 특정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중략 이전에 ‘그’라는 인물의 과거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략 이후에 현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②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다.

→ 중략 이후에 겨울이 전에 없이 일찍 앞당겨 찾아온 늦가을 날씨라고 계절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③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공간적 배경에 대해 상세한 묘사를 하는 부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호소 식당 등에 대해 간단하게 묘사할 뿐입니다.

④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위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작가가 작품 밖에서 ‘그’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그’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찰자 시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⑤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 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기지 않습니다. 서술의 초점은 ‘그’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2.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㉓

㉔ 한 그릇의 국수

① '어머니'와 '그'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매개물이다.

→ 국수 때문에 '어머니'와 '그'가 갈등을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국수가 두 인물 간 갈등을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② '그'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매개물이다.

→ 사회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재입니다. 위 작품에서 '그'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③ '그'가 '어머니'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는 매개물이다.

→ '어머니'의 발화를 보면 자신의 자식을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다며 구호소 식당으로 데리고 가 국수를 먹이게 됩니다. 그렇게 국수를 먹다가 '그'는 고개를 들었는데 '어머니'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도 목구멍이 빠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그'가 '어머니'의 감정에 공감했기에 같이 울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어머니'가 자식을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 없다고 하며 아버지가 이 꼴을 본다면 무엇이라고 하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구호소 식당으로 데려갑니다. 이를 보면 이전에 '그'가 도둑질을 했거나 거지 행세를 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꼴을 아버지가 본다면 뭐라 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어머니'는 바라지 않기에, '그'를 식당으로 데려가 국수를 먹인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어머니'에 대한 '그'의 배려를 드러내는 매개물이다.

→ '그'에 대한 '어머니'의 배려로 보아야 하지 '어머니'에 대한 '그'의 배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국수는 '그'가 먹는 것입니다.

⑤ 어려운 처지의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는 매개물이다.

→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는 매개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어려운 처지인 것은 옳으나, 이 국수가 위안을 주는 매개물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㉑~㉕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㉓

㉑ 그렇게…… 그렇게도 배가 고프디야

㉑ 가자. 아무리 없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더라도 나는 절대로 내 새끼를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는 없으께. 시상에…… 시상에. 돌아가신 느그 아버지가 이런 꼴을 보시면 뿔이라고 그러시끄나이

㉒ 먹어라이. 어서 먹어 보란 말다이……

㉓ 찬우야이!

㉔ 찬우야이. 어서 꼬두메로 돌아가자이. 느그 아버지랑 찬세가 얼마나 기다리겠냐야. 더 추워지기 전에 싸게싸게 집으로 가야 한단 말다이

< 보 기 >

'눈이 오면'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발화 내용과 어우러져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수치심, 죄책감, 불길함, 섬찝함, 당혹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야기한다.

㉑ ㉑에서 '어머니'가 냇두리에 가까운 말로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한 것은 '그'가 구호소 식당을 보았을 때 느낀 까닭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어지는군.

→ ㉑은 '어머니'가 냇두리에 가까운 말로 아들의 배고픔을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 후 '어머니'는 '그'를 구호소 식당으로 데리고 가게 되고, '그'는 구호소 식당을 보고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㉑이 '그'의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㉒ ㉒에서 '어머니'가 냉랭한 음성으로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그'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결국 '그'로 하여금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군.

→ ㉒에서 '어머니'는 냉랭한 음성으로 자식을 거지나 도둑놈으로 키울 수 없다고 아버지가 본다면 무엇이라고 하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우리는 2번 문제에서 '그'가 도둑질이나 거지 행세를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아버지가 본다면 무엇이라고 하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언급한 것은 '그'에게 이러한 행위에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울음을 터뜨리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㉓ ㉓에서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한 것은 '그'에게 불길함을 느끼게 하여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군.

→ ㉓에서 '어머니'는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젓가락을 딸각 놓는 행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국수를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더니 '어머니'가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는 그만 젓가락을 딸각 놓아 버리고 맙니다.

㉔ ㉔에서 '어머니'가 생경한 이질감이 느껴지는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에게 '어머니'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여 섬찝함을 느끼게 하는군.

→ ㉔을 듣고 '그'는 섬찝함을 느낍니다. 이는 '그'가 '어머니'에게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섬찝함을 느꼈

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㉔에서 '어머니'가 힘이 서린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드러내어 '그'에게 당혹감을 갖게 하는군.

→ ㉔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듣고 '그'는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것을 확인한 '그'의 모습입니다.